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시장 불안 증대

-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& Poors(이하 S&P)는 아일랜드 경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부채 상황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함.
  - IMF는 지난 7월에 아일랜드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-1.3%에서 1.0%로 상향 조정했으나, 8월 들어 세계경기 악화 조짐이 대두되면서 다시 -0.6%로 하향 조정함.
  - S&P는 경기악화로 부채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여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AA-로 한 단계 낮춤.
- S&P는 2010년 아일랜드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37%이며, 재정적자는 GDP 대비 14%에 달하고,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규모는 GDP 대비 50%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.
  - 아일랜드는 국가부채의 규모를 GDP 대비 97%로 예측함으로써 S&P의 예측치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부채가 급증한 것은 Anglo Irish 등 은행들에 투입된 구제금융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됨.
  - 현재 아일랜드 정부와 S&P는 구제금융에 대한 담보자산의 평가손실을, 은행들의 자본보강 규모, 은행권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임.
    - S&P는 금번 신용등급결정에 담보자산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반면, 아일랜드 정부는 62%의 잔존가치가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함.
    - 또한 S&P는 은행들의 자본보강 규모는 500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반면 아일랜드 정부는 250억 유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함.
  - S&P는 은행권에 투입된 최종적인 공적자금 규모는 아일랜드 GDP의 50%인 9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.
-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아일랜드 국채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국채 매도세가 커졌으며, 유럽의 주가도 영향을 받아 하락함으로써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임.
  - 10년 만기 아일랜드 국채수익률은 0.25%p 상승한 5.48%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안정적인 독일 국채수익률과의 격차가 5월 이후 가장 큰 폭인 3%p 이상으로 벌어짐.
  - 신용등급 하락과 더불어 미국 주택경기 불안이 가중되면서 영국의 FTSE300 지수는 0.8% 하락하고, 독일의 Xetra Dax 지수는 0.6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(Financial Times 등, 8/25)